

광주도시공사, '전체 1순위' 송혜수 낙점

2022 여자 실업핸드볼 비대면 신인 드래프트

2018 U20 세계 선수권 MVP...차세대 센터백 주목 2R 종별선수권 경남체고 준우승 주역 박세림 선택

광주도시공사가 '2022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에서 대어를 낚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7일 열린 '2022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1순위' 송혜수(22·한체대)를 낙점했다.



송혜수



박세림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신인 선수 선발에 앞서 지난 시즌 성적을 기반으로 공을 배분해 지명 순서를 추첨했다.

지명 순서는 광주도시공사(3위)-SK 슈가글라이더즈(4위)-서울시청(8위)-부산시청(1위)-컬러풀대구(6위)-인천시청(5위)-경남개발공사(7위)-삼척시청(2위) 순으로 결정됐으며, 확률이 낮았던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이 앞순서로 뽑히는 이변을 낚았다.

1라운드는 8개 모든 팀이 지명권을 행사했다.

1라운드 1순위 지명에 나선 광주도시공사 사 선택한 선수는 전체 1순위 후보로 꼽혔던 송혜수(CB)였다.

인천비즈니스고와 한체대를 나온 송혜수는 2018년 헝가리에서 열린 제21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

국을 3위로 이끌며 대회 최우수선수 MVP로 뽑힐 만큼 출중한 기량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여자핸드볼 센터백으로 주목을 받았다.

송혜수는 지난 9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대한민국 5연패 달성에 기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라운드에서 경남체고 박세림(PV-LW)을 선택했다.

박세림은 제76회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경남체고에 준우승을 안기며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27일 열린 2022 여자 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서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감독이 1라운드 1순위로 송혜수를 호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오늘 지명한 두 선수는 광주도시공사 팀에 꼭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이라며 "특히 송혜수는 현재 강경민이 맡고 있는 센터백(CB)포지션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수와 박세림은 29일부터 3일간 관고 나인트리프리미어호텔에서 대한핸드볼협회 주관으로 도핑 및 인권윤리, 스포츠 컨디셔닝, 스포츠 심리, 부

티, 스피치, 경기규칙과 판정 기준, 재정 관리 교육 등 입단 전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핸드볼협회가 주관하고 8개 여자 핸드볼 실업팀이 참여한 2022 여자 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결과, 총 21명이 신청해 16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아 성인 무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해 지명률은 76.2%를 기록하며 평균 지명률은 75.3%에서 75.4%로 소폭 상승했다. /박희중 기자



제11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제1회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파크골프협회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파크골프, 전국대회 준우승

제1회 왕중왕전, 심안만·정월자組 포섬경기 2위

전남파크골프가 제11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제1회 왕중왕전에서 포섬경기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파크골프협회는 27일 "최근 강원도 화천파크골프장에서 폐막된 대회 개인전 왕중왕전 포섬경기에서 심안만(목포 비파클럽)-정월자(담양클럽)조가 준우승을 차지, 12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포섬(foursome)경기는 각 팀당 2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를 번갈아 치는 방식이다.

왕중왕전 포섬경기 출전 자격은 각 시·도 선수단 중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에게 주어진다. 전남선수단에서는 개인전 남자부 5위를 차지한 심안만과 여

자부 7위에 오른 정월자가 왕중왕전에서 팀을 이뤄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김철관(목포 한마음클럽)도 개인전 7위를 차지하며 왕중왕전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전남 파크골프 선수단은 코로나19로 전국대회 휴식기의 아쉬움을 접고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며 전남파크골프 동호인 사기 진작, 전남체육 위상 제고, 파크골프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팀으로 얻었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은 "오랜만에 치러진 어르신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체육활동을 통해 일선 현장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들의 모습. /연합뉴스

'동심'(同心)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공개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이 공개됐다.

베이징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수여할 메달 디자인을 발표했다.

메달의 이름은 '한마음으로'(together as one)라는 뜻의 '동심'(同心)으로 정했다. 중국 발음으로는 '통심'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와 뜻이 통하는 메달 명칭인 셈이다.

메달 가운데 오른 마크가 들어 있고 5개의 동심원이 열음, 눈, 구름 등의 무늬와 함께 새겨졌다. 동심원은 중국에서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의미한다.

또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메달 디자인도 가미해 베이징이 사상 최초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도시라는 점도 부각했다.

메달 뒷면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대회 명칭을 한자로 표기했고, 세부 종목은 영어로 메달 하단에 새겨 넣었다. 메달 모양은 중국 고대 옥 목걸이의 펜던트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4일 개막해 2월20일까지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벽 높았다 한국여자축구 0-6 완패...친선경기 2연전 1무 1패



27일 열린 친선 경기 2차전에서 한국의 지소연(앞·빨)이 상대 에밀리 소넷(위싱턴)과 볼을 다루고 있다. /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벨 감독 "대량 실점은 체력 부족 탓...완성도 높여야"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1위 미국과 친선 경기 2차전에서 0-6으로 졌다.

FIFA 랭킹 18위 한국은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의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미국과 친선 경기에서 6골 차 영패를 당했다.

지난 22일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에서 열린 1차전에서 0-0 무승부로 선전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원정 2연전을 1무 1패로 마무리

했다. 1무 1패의 성적 자체는 객관적인 전력상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차전에서 6골 차로 크게 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미국과 역대 전적은 15전 4무 11패가 됐다. 벨 감독은 이날 미국과의 친선경기를 마치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22일 1차전은 내용이 좋았으나 2차전은 다른 양

상이었다"고 되짚었다. 벨 감독은 "1, 2차전에 선수 변화를 주고 싶어도 선수들 간에 체력적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는 미국처럼 높은 수준의 팀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선수들이 전술적 이해도나 기술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높은 수준의 상대와 경기하려면 체력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의충돌 의혹 심석희 직접 조사...필요할 경우 소환"

빙상연맹 조사위, 1차 회의서 조사 범위·대상·방법 결정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충돌 의혹을 받는 심석희(24·서울시청)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27일 열린 제1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관해 토의했다"며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고려하지 않지

만, 필요할 경우 제삼의 장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현 조사위원은 부연 설명에서 "당사자에 관한 조사는 필요하다"며 "다만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최대 한 빨리 조사를 마칠 것이라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조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최근 대표팀 전직 코치인 A씨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고의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심석희는 A씨에게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심석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충돌해 페널티 판정을 받았다.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심석희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올림픽 결승에서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민정 측은 "심석희와 A코치 사이에서 오간 대화와 똑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고,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는 대화가 이어졌다"며 "이는 심석희와 A코치가 의도적으로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빛고를 우수선수·청년체육인재 120명 대상

광주시체육회, 기초·전문체력 측정

내년 체육인재 선발 자료 활용

광주시체육회가 우수선수 및 청년체육인재로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의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점검하기 위해 10일간 체력 측정을 실시한다.

체력 측정은 우수선수 21종목 84명, 청년체육인재 15종목 36명 등 120명을 대상으로 11월3일까지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년간 전국체전에서 일반부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일반부 선수들에 대한 체력 측정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내년도 우수선수 및 청년체육인재를 선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광주 출신 선수들이 졸업 후에도 꾸준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체육인재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광주시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이 선수들의 체력측정을 돕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며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광주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7년차 이상-등록 60일 미만 선수'

프로야구 2군리그 FA제도 신설

프로야구에 퓨처스(2군)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신설돼 올 시즌 후 바로 시행된다.

KBO 사무국은 지난 26일 프로 10개 구단 대표가 참석한 이사회를 열어 퓨처스리그 FA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생 구단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KBO 사무국은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보강 방법을 넓혀주는 취지에서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FA 제도를 차용한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는 첫 6시즌을 풀타임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선수에게 FA 자격을 준다.

KBO리그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에는 각 구단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1군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한다. /연합뉴스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해에 1군 리그에 145일 이상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 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지면 구단은 다른 구단 소속 퓨처스 리그 FA 선수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KBO 이사회는 또 야구와 관련한 유해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약도 새로 만들었다.

제 기준을 명확하게 손질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KBO 규약 제14장 유해 행위 규제 규정을 정비했으며, 규정의 체계와 표현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인권 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해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